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선정

군산시 방축도, 숙박시설 리모델링... 매년 증가하는 섬 관광객 숙박시설 부족 개선

군산시가 2024년 해양수산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공모한 결과 방축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촌마을의 체류장 숙박시설 등을 개선해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22~2023년 어촌관광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찾고 싶은 관광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특화 아이템으로 '숙박 중심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7개 마을이 신청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진행되었다. 군산의 '방축도마을' 외에도 경상남도 남해군 '이어마을', 경상북도 포함

시 '청바우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이 고도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4개 마을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4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지원될 예정이다. 방축도는 고군산군도 한가운데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섬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름다운 기암괴석과 바다의 조화로 다채로운 어촌 여행지로 각광을 받아왔다. 관광명소와 체험으로는 무인도인 광대도와 방축도를 연결하는 길이 83m의 출렁다리로 자연 속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광대도 출렁다리, 파도와 바람의 침식작용을 만들어낸 완벽한 아치가 눈길을 사로잡는 독립문 바위가 있으며, 배를 타고 우럭, 노래미 등 다양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선상 낚시체험 등이 있다.

다양한 매력으로 가득찬 방축도는 2022년 10월 군산시로부터 체험마을로 지정되었고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여 군산시 대표 어촌 체험마을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방축도마을은 '방축도 힐링 섬박'이라는 운영 콘셉트에 맞게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갖춘 해양 치유형 숙소를 조성하고 숙박객 편의를 위한 전용 숙박용품 제작하는 등 방축도에 방문하는 체험·관광객이 섬의 정취를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숙소 조성 계획 외에도 방축도는 현재 군산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여객선 반값요금, K-관광섬 육성, 발도-명도-방축도 연륙교 조성,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사업 대상으로 비연륙 도서의 관광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업 투자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실감콘텐츠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활발히 조성 중이다

홀로그램 선도도시 자리매김 박차

익산시, 마이크로엑스알·마케톤·요요인터랙티브와 투자협약 체결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업 투자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실감콘텐츠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활발히 조성 중이다. 시는 25일 익산시청에서 (주)마이크로엑스알(대표 표도연), 마케톤(대표 양창준), (주)요요인터랙티브(대표 이경주) 등 3개 홀로그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이들은 익산시에 지사를 설립해 10여 명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를 기반으로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사업영역 확대를 지원한다. (주)마이크로엑스알은 3D 카메라 및 3D 현미경이 주 생산품이며, 2019년 특허기술상을 수상하고 2021년에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과학관 등 교육 분야와 농생명 분야 기관은 물론 지난해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마케톤은 국내 유일 호버링 홀로그램 기술 보유 업체로 비접촉 터치

제품을 생산한다. 마케톤의 제품은 엘리베이터 승강기(청주공항 설치), 발권시스템(강남구청 설치), 과학교실(사대문 자연사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 납품하며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주)요요인터랙티브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메타버스 및 실감콘텐츠 개발 전문기업이다. 정부 과제 및 국방·지자체 사업에 경험이 많으며, 주로 가상현실 기반 교육 훈련 시스템, 디지털 트윈,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 개발사업의 에타사업 통과와 국가공보사업 '상용차용 대화면 다기능 홀로그래피 HUD 서비스 실증사업',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시화 서비스 사업과 실증사업' 등에 선정되며 실감콘텐츠 산업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 /익산=이재훈기자

군산항·신항 One-Port 전략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시, 기능 보완적 발전방안 제시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항·신항 One-Port 전략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기능 보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군산항·신항 원 포트(One-Port) 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신항은 군산시 육도면 무너도,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의 공유수면에 군산시 육도면 두리도와 연결해 인공섬 형태로 조성된다. 신항이 완공되면 새만금 산업단지 발생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해양관광·레저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종합항만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

를 위해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3개 선석이 건설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군산항과 신항의 지정학적 배경, 해운·항만 여건 분석,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역할 분석, 항만행정체계 단일화 영향 분석,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등이며 이를 통한 군산항과 신항의 One-Port 전략수립과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김제시와 분쟁 중인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한 행정적·자연환경적·지리적인 관

점에서 조정 배경 분석을 통해 군산시 귀속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군산항의 수심 부족 기능의 보완 및 군산항 항세 확장의 연장선상에서 건설되는 군산새만금신항의 본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방안을 제시했다. 군산시는 이번 용역 최종 성과물을 관련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에 송부, 새만금신항의 군산시 귀속 당위성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항과 군산항을 군산시 단일 행정구역으로 관리,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산업을 지원하고 대중국 및 대동남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발품행정 펼쳐

익산시가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 경쟁 속에 중앙 부처를 방문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품행정을 펼치고 있다. 허진 익산시 부시장은 25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먼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장과의 면담 자리를 갖고 호남권 철도교통의 거점역인 익산역 이용객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KTX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국식품물러스터추진팀장을 만나 국가식품물러스터의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식품기업 전문교육센터'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 위한 '대조천·목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허진 부시장은 "중앙부처별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부처단체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청년 농업인 육성 전폭 지원

정헌을 익산시장인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물심양면 지원을 강조했다. 정헌을 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농촌에 정착하는 우리 청년들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미래 자산"이라며 "후계농을 비롯한 청년농업인이 지치지 않고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익산시는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도 시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16개 사업에 예산 27억 3,300만 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는 더 많은 청년농업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그 기준을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은 만 18~39세, 전북도 기준은 만 44세 이하다. 익산의 경우 그 문턱을 더 낮춰 청년농업인을 만 49세 이하로 규정한다. 시는 청년농업인의 쉬운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CEO반'과 현장지원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정착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 지원을 추가로 추진한다. /익산=이재훈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시민감사관 제3기 본격 활동 돌입

군산시는 22일 '2024년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3기 시민감사관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외부 시민 전문가의 감사 참여로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이번에 선발된 3기 시민감사관은 향후 2년간 군산시 감사담당관과 함께 종합감사 및 분야별 현장 감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선 시민감사관 2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 활동 방향과 역할 및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군산시는 올 한해 시민감사관 중점 사업으로 △각종 제보·건의의 활성화 통한 제도개선 △공사 관리·감독 참여 및 20개소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 참여 △자세 종합감사 일정 공개를 통한 모니터링 △특정 전문가 분야 참고 자료 활성화 △고충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관근기자

익산시, 지역 대학생들 '천원의 아침밥' 제공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대학생들의 든든한 아침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쌀 또는 쌀가공 식물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려는 취지다. 한 끼당 국비 2,000원, 도·시비 1,000원, 학교 1,000원인 사업에 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5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방학기간 제외하고 2개 대학교에서 일평균 100명에게 아침밥을 지원했다. 원광대는 구내식당에서 직접 조리한 한식을, 원광보건대는 편의점 간편식을 제공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